

# 21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 양상에 따라 시장 구조를 크게 독점시장, 과점시장,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수록 독점시장에 가까워지고, 다수의 기업이 공급을 나누어 가질수록 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시장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집중률'이다.

시장집중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점유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시장점유율이란 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 비중을 의미하는데, 생산량,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Y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Y기업의 생산량/시장 내 모든 기업의 생산량의 총합)×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시장 내 한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라면, ㉣ 시장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몇 개의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미국에서는 상위 4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을 시장집중률로 ㉤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집중률을 통해 시장 구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장집중률이 높으면 그 시장은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집중률이 낮으면 공급이 다수의 기업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률이 80% 이상이면 독점시장, 60% 이상 80% 미만이면 과점시장, 60% 미만이면 경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집중률을 측정하는 ㉥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며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도 달라진다. 어느 시장의 시장집중률을 '생산량'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A, B, C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고 시장집중률이 80%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는 D, E, F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 되고 시장집중률이 60%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집중률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며, 이를 통해 시장 내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 파악해 볼 수 있다.

1.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구조의 변천사
- ② 시장집중률의 개념과 의의
- ③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의 비교
- ④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의 특성
- ⑤ 시장집중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나라 신발 시장의 가상 시장점유율(%)**

측정 기준 \ 구분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합계
생산량	40	10	20	25	5	100
매출액	30	10	20	25	15	100

\* 시장 구조의 구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준을 따름.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내의 기업은 5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 ①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변하지 않  
는군.
- ②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군.
- ③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나) 기업과 (마) 기업이 합병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높아지겠군.
- ④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률이 10% 상승하면 이 시장은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변하겠군.
- 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 기업과 (라) 기업의 시장점유  
율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이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낮아지  
겠군.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의 불확실성이 보완된다.
- ② ㉠은 ㉣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③ ㉠은 ㉣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은 ㉣의 상위 개념이 된다.
- ⑤ ㉠은 ㉣을 합산한 결과이다.

4.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② ㉡ :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 ③ ㉢ :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
- ④ ㉣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 ⑤ ㉤ :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의 청계광장은 ‘스프링(Spring)’이라는 다슬기 형상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것을 기획한 올덴버그는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여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했다. 이와 같이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을 공공미술이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공공미술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점차 확장하는 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미술관에만 전시되던 작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공건물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건물에 설치된 작품들은 한낱 건물의 장식으로 인식되어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놓이게 된 작품 중에는 주변 공간과 어울리지 않거나,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소통에 대한 미술가의 반성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미술은 점차 주변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공공미술은 참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대중을 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공공미술은 대중들이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작품을 보고 만지며 체험하는 활동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가와 대중, 작품과 대중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던 ‘결과 중심’의 수동적 미술이라면,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은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여 작품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 중심’의 능동적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

[A] 그런데 공공미술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미술가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대중과의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 공공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예술적 감성이 어떠한지, 대중이 어떠한 작품을 기대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며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결과 중심의 미술이다.
- ② 올덴버그의 ‘스프링’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작품이다.
- ③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 ④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작품 창작에서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 ⑤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 및 활동은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야 린, [베트남 참전 기념비]

기존의 우뚝 솟은 기념 조형물과는 달리, 베트남 전쟁 재향 기념관에는 70미터 길이의 벽에 58,000명의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지며 개인의 슬픔과 국가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능동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전쟁과 그 희생자에 대해 기억하도록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념비이자 예술 작품이 된다는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 ① 관람객이 아픈 역사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수동적으로 감상에 입할 수밖에 없겠군.
- ② 베트남 전쟁 재향 기념관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작품이라기 보다는 건물의 장식이었겠군.
- ③ 관람객의 체험을 통해야만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로 볼 수 있겠군.
- ④ 기존의 조형물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관람객에게 수용되지 못하겠군.
- ⑤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과의 소통에 장애물이 되었겠군.

7. [A]의 입장에서 <보기>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주변의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던져 놓은 듯 만들어 놓은 공공미술 작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는 대중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미술가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들은 대중에 의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다.
- ② 공공미술 작품이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작품에서 작가의 미학적 입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 ④ 공공미술에서 미술가가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은 열려 있다.
- ⑤ 미술가의 생각을 작품에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이 난해하게 느끼면 이 작품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8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특정한 능력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긍정하는 입장을 서양철학에서는 표상주의라고 한다. 표상주의는 근대인식론의 바탕을 이루며,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와 달리 신실용주의 철학자 로티는 표상주의를 비판한 ‘반(反)표상주의’를 통해 서양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㉔ 모색하였다.

로티의 반표상주의는 넓은 의미로 ‘반(反)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를 모사(模寫)한 거짓 세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톤의 전통을 ㉕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진리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로티는 이들이 진리의 세계를 비춘다고 믿었던 거울이 비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며, 이들이 이야기한 진리는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역사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것임을 철학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였다. 즉 로티는 이들의 거울에 비친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로티는 거울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울이미지(mirror image)’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비유에 ㉖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로티는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비출 수 없다면 결국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서술하는 문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소설 쓰거나 시 쓰기와 같은 문학작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티는 새로운 철학적 방향으로 ㉗ ‘문학적 문화(literary culture)’를 제안했다.

로티가 말하는 문학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㉘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다. 또한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참된 의미들을 창조하고, 이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이다.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쇠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성을 ㉙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상주의는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 ② 반표상주의는 플라톤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 ③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진리를 비추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 ④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로티는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9. ㉗의 특성이 나타난 현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속 집단 속의 삶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모습
- ②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 ③ 행동이 앞서는 실천적 삶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모습
- ④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모습
- ⑤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일회적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10. 위 글의 ‘로티’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듀이는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탐구의 대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며, 문제는 같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말해 왔던 것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① 듀이는 플라톤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군.
- ② 듀이는 연대의식을 추구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있군.
- ③ 듀이는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군.
- ④ 듀이가 말한 삶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문학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군.
- ⑤ 듀이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군.

11. ㉔~㉙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알려주었다    ② ㉕ : 이어받은    ③ ㉖ : 지나지 않은
- ④ ㉗ : 찾을    ⑤ ㉙ :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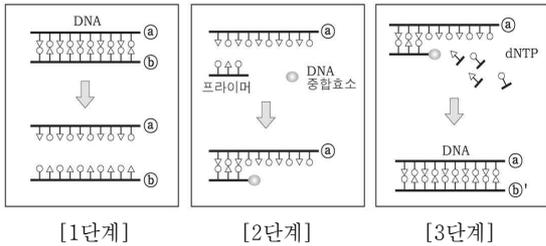
[12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에는 소량의 혈액이나 머리카락 하나로도 친자를 구별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마다 타인과 구별되는 유전자 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량의 혈액이나 머리카락 하나에 담긴 DNA의 양은 매우 적으므로 유전자 지문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면 필요한 DNA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란 'DNA 중합효소'라는 촉매\*를 통해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하는 방법이다.

DNA는 두 개의 긴 가닥이 사다리모양으로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네 종류 염기들이 짝을 이루어 결합되어 있다. 이 때 아데닌은 구아닌과, 시토신은 티민과만 결합하는데 이러한 염기의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이러한 결합의 속성을 활용하여 DNA를 복제하는 것이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위해서는 미리 ㉠ '프라이머'와 많은 양의 ㉡ 'dNTP'를 준비해야 한다. 프라이머란 '복제하고자 하는 DNA'의 일부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짧은 DNA 조각인데, 중합효소 연쇄반응 시 복제하고자 하는 DNA와 결합하여 DNA 복제의 시작점이 된다. 또한 dNTP는 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 짧은 조각에 불과했던 프라이머에 순차적으로 붙어서 한 가닥 DNA가 된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작하려면 먼저 복제하고자 하는 DNA와 프라이머, dNTP, DNA 중합효소 등을 시험관에 담는다. 이후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시험관에 95~97°C의 열을 가하여 복제하고자 하는 DNA를 두 가닥으로 분리한다. 2단계에서는 온도를 50~60°C로 낮추어 1단계에서 분리된 한 쪽의 DNA 가닥(㉢)이 이것의 일부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프라이머와 결합하도록 한다. 이어서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붙으면서 DNA 복제를 준비한다. 3단계에서는 온도를 다시 70~72°C 정도로 높여 ㉣ DNA 중합효소를 활성화시킨다. DNA 중합효소는 복제하고자 하는 DNA의 염기서열을 읽은 후, 이와 상보적인 염기를 지닌 dNTP와 프라이머의 결합을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프라이머의 끝부분에서부터 dNTP의 결합이 순차적으로 ㉤ 일어나 또 하나의 DNA 가닥(㉥)이 만들어짐으로써 DNA의 복제가 완성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복제하고자 하는 한 개의 DNA는 2<sup>1</sup>, 2<sup>2</sup>, 2<sup>3</sup>.....2<sup>n</sup>개가 되므로 다량의 DNA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필요한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의료, 범죄 수사, 분자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촉매 :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
| ① | 복제의 대상  | 복제의 시작점  | 반응 촉진 물질 |
| ② | 복제의 대상  | DNA의 재료  | 복제의 완결점  |
| ③ | 복제의 시작점 | DNA의 재료  | 반응 촉진 물질 |
| ④ | 복제의 시작점 | 반응 촉진 물질 | 복제의 완결점  |
| ⑤ | 복제의 완결점 | 복제의 대상   | DNA의 재료  |

[13 ~ 14]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다음과 같이 과학 노트를 정리하였다. 48번과 4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학습 주제 :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DNA의 대량 복제

○ 학습 내용

가.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효과와 개념

나.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과정

- 1단계 전 복제할 DNA, 프라이머, dNTP, DNA 중합효소 등을 시험관에 넣음. ....(㉠)

<1단계>

- 얽혀 있던 DNA가 두 가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2단계>

- 이전 단계에서 분리되었던 두 가닥의 DNA가 다시 결합함. ....(㉢)

<3단계>

- 활성화된 DNA 중합효소는 dNTP와 프라이머의 결합을 촉진시킴. ....(㉣)

- 3단계까지 진행되면 최초 DNA의 2배가 됨. ....(㉤)

○ 심화 학습 과제 : \_\_\_\_\_ [A] \_\_\_\_\_

13.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DNA의 아데닌은 어떤 염기와 결합할까?  
 ② DNA의 내부는 몇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을까?  
 ③ DNA 중합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도는 몇 도 정도일까?  
 ④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⑤ 분리된 한 쪽의 DNA 가닥과 프라이머 중 길이가 긴 것은 무엇일까?

15. ㉣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 ① 그녀는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났다.  
 ② 그는 일 년이 지나서야 병상에서 일어났다.  
 ③ 그녀는 화가 나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④ 그 증상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일어났다.  
 ⑤ 아버지 대에 이르러 그의 집은 크게 일어났다.

**빠른정답.**

2	4	2	4	4
3	4	4	4	2
1	3	3	4	4

**[1~3] (사회) 최정표, 「시장집중률」**

이 글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수치인 시장집중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 내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인 시장집중률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게 해 주는데, 시장집중률이 높으면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집중률이 낮으면 공급이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1.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이 글은 ‘시장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는 수치,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한 값이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장 구조를 구분하고, 시장 내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③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에 따라 시장 구조를 구분하면서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비교가 이 글의 핵심은 아니다. ④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집중률의 특성이 되어야 성립 가능하다.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한다.**

제시된 <보기>를 이해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집중률을 계산한다면, 상위 1~3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더한 값은 75%가 되고 이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장집중률이 10% 상승하게 된다면 80% 이상의 시장집중률을 보이게 되므로 이 시장은 과점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집중률은 85%,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집중률은 75%이므로 측정 기준을 달리 하면 시장집중률은 달라진다. ②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시장은 85%의 시장집중률을 보이는 독점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나) 기업과 (마) 기업이 합병한다고 해도 이들이 상위 1~3위 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집중률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⑤ (다)와 (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두 기업은 전체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게 되므로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높아진다.

**3. [출제의도] 글의 중심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은 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의미하는 수치이며, 상위 3개 기업의 ㉠을 더하면 ㉡ 값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가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은 ㉡의 이해를 위한 전제이지 ㉡의 불확실

성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④ ㉠은 ㉡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 상위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은 ㉠을 합산한 결과이다.

**4. [출제의도] 글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한다.**

④ ㉠의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이라는 뜻은 ‘변수’라는 어휘의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② ㉡ 비중: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③ ㉢ 채택: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 ⑤ ㉣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5~7] (예술) 임성훈, 「공공미술」**

이 글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공공미술은 공공성의 성격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의 자율성은 대립하지 않음도 밝히고 있다.

**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4문단에서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했기 때문에 ④와 같이 대중의 참여를 중요시했다고 할 수 없다.

**6.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작품은 사람들이 작품을 만지는 체험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다.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은 대중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므로 <보기>의 작품은 참여 중심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보기>는 예술의 공공성을 위해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A]에서 공공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8~11] (인문) 이유선, 「리처드 로티」**

**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로티가 제안한 ‘문화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티가 문화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1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 네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5문단에서 로티는 ‘문학적 문화’가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채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연대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 중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모습’은 ‘문학적 문화’의 특성 중 공적 영역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보기>에는 듀이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보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로티가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대의식의 추구는 듀이가 말한 삶 속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1.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1문단에서 ‘모색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알려 주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2~15] (과학) 김상구 외, 『최신유전학』

12. [출제의도] 글의 중요 개념 이해하기

3문단에서 프라이머가 중합효소 연쇄반응 시 복제하고자하는 DNA와 결합하여 DNA복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내용, 4문단에서 dNTP는 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내용, 5문단에서 DNA 중합효소는 DNA의 염기서열을 읽은 후, 이와 상보적인 염기를 지닌 dNTP와 프라이머의 결합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통해 ㉠은 ‘복제의 시작점’, ㉡은 ‘DNA의 재료’, ㉢은 ‘반응 촉진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분리된 한 가닥 DNA와 프라이머가 결합한 후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붙으면서 복제를 준비한다. 이전 단계에서 분리되었던 두 가닥의 DNA가 다시 결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심화 과제 설정하기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란 DNA 중합효소라는 촉매를 통해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나,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걸리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아보는 것은 심화학습 과제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아데닌은 구아닌과 결합함을 알 수 있다. ㉡ 2문단에서 네 가지의 염기가 DNA 내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문

단에서 DNA 중합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도는 70~72°C임을 알 수 있다. ㉤ 3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프라이머에 dNTP가 결합하여 또 하나의 DNA 가닥을 완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머의 길이는 복제 대상 DNA의 길이보다 짧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증상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일어났다.’의 ‘일어났다’ 역시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어떤 증상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